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허7477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진형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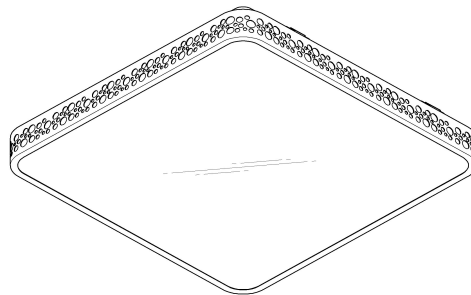
특허심판원이 2018. 8. 22. 2017당16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 천장등
-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94838호/ 2014. 10. 30./ 2015. 4. 27.
- 3) 주요 도면 :



[저면사시도]



[좌·우측면도]

나. 선행디자인들¹⁾

-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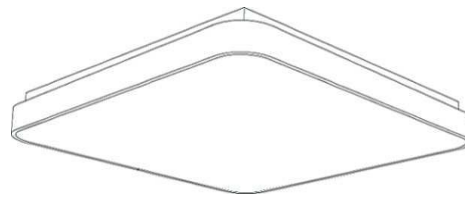
가) 물품의 명칭 : 천장²⁾매다는 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587125호/ 2011. 1. 25./ 2011. 2. 8.

1)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6'을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각 지칭하기로 하고, 이하 이 사건 심결에서 실시된 각 대응 비교대상디자인도 같은 취지로 명칭을 바꾸어 지칭하기로 한다.

2) 선행디자인 1의 등록디자인공보(갑 제4호증)에는 해당 물품의 명칭이 '천정매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어표기법에 맞게 '천정'을 '천장'으로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다) 주요 도면 :



[저면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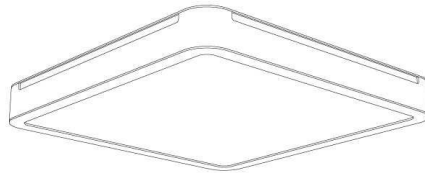
[좌·우측도]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³⁾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699929호/ 2013. 6. 28./ 2013. 7. 8.

다) 주요 도면 :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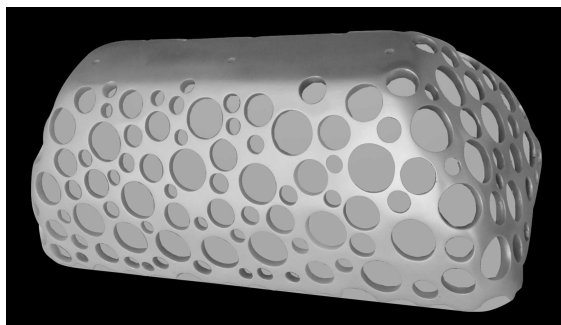
[좌·우측도]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594538호 유사 제1호/ 2012. 10. 9./
2012. 10. 16.

다) 주요 사진 :



[사시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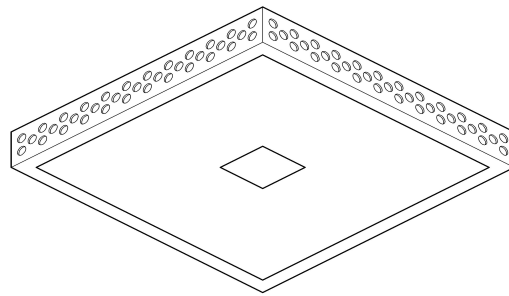
3) 각주 2)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하여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4)직착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611788호 유사 제1호/ 2011. 9. 1./
2011. 9. 14.

다) 주요 도면 :



[저면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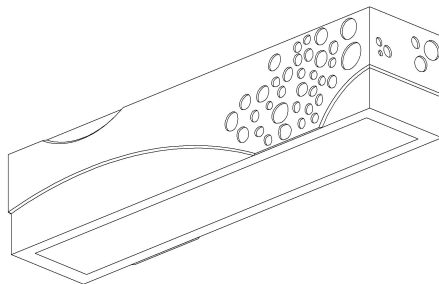
[좌·우측도]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

가) 물품의 명칭 : 천장등

나) 등록번호/ 등록일/ 공고일 : 디자인등록 제734951호/ 2014. 3. 14./ 2014. 3. 21.

다) 주요 도면 :



[저면 사시도]



[정면도]

6) 선행디자인 6(갑 제10호증)⁵⁾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게시기간 2014. 10. 1.부터 2014. 10. 29.까지로 하여 검색된 '리브라 캔들홀더'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4) 각주 2)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하여 고쳐 쓰기로 하고, 이하 같다.

5) 특허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행디자인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게시물 속 사진(갑 제10호 증)에 표현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2017당1667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3 및 5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8.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은 천장등이라는 물품의 일반적, 기능적인 형상에 해당하거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프레임 테두리 부분에 크고 작은 다양한 원형 구멍들이 아주 조밀하게 밀집되어 좌우로 길게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부분, 테두리 4군데의 모서리 형태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로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양 디자인의 차이점으로 인해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

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에서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또는 2와는 2단의 구조라는 전체적인 기본 프레임의 점에서, 선행디자인 4와는 측면에 다양한 원형 구멍들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각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각 선행디자인은 서로 극히 유사한 디자인이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i) 2단 구조의 기본프레임을 갖는 선행디자인 1, (ii) 사방의 측면에 크고 작은 다양한 원형 구멍들이 밀집되어 있는 선행디자인 3, 5 또는 6, (iii) 측면의 상·하부에 여백을 두고 원형 구멍들을 길게 배열시킨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무효 사유인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주지저명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 주장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

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는 측면부의 원형 구멍 개수, 밀집 정도, 패턴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 위와 같은 차이점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5 또는 6과도 측면부의 원형 구멍 개수, 밀집 정도, 패턴 등에 차이가 있어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원형 구멍에 관한 디자인은 상당한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지배적 특징 중 하나로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 3794 판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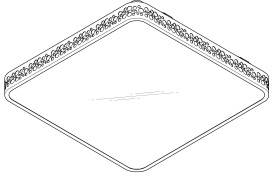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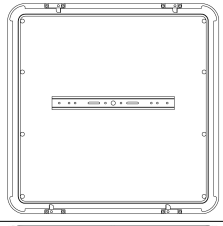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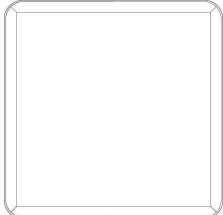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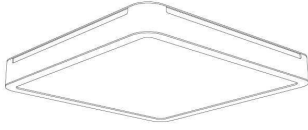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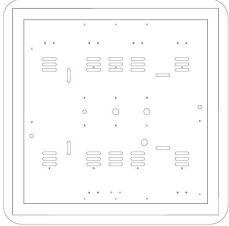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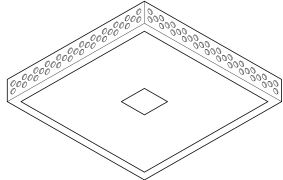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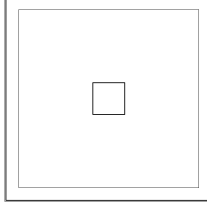
2)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는 모두 천장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에 대한 디자인들로서, '천장등'(이 사건 등록디자인), '천장매다는 등'(선행디자인 1), '천장직착등'(선행디자인 2, 4) 등 각 해당 등록디자인공보에 기재된 물품 명칭의 일부 차이에 불구하고 위 각 디자인이 표현되는 대상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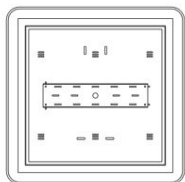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4의 대비

구분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4			

[원고는 위 선행디자인 1, 2, 4 외에 갑 제6호증(디자인등록 제705582호 유사 제1호, 공고일 2013. 9. 5.,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에 개시된 디자인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원고의 2018. 9. 28.자 준비서면 제8쪽 위에서부터 제2 내지 4줄 참조),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갑 제6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 구체적 주장을 한 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을 갑 제6호증 개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별도 주장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 개시 디자인은 3단 구조의 직육면체 형상인데다가⁶⁾, 하부프레임에 아무런 모양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⁷⁾,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선행디자인 1, 2, 4와의 대비만을 기초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갑 제6호증			

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① 아래 및 위에서 각 바라볼 때, 모서리 부분이 곡면으로 처리된 정사각형의 형상이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비)(이하 '공통점 ①'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도 같은 형식으로 부른다).

② 전체로 볼 때,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입체 형상이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4의 대비).

③ 정면에서 볼 때, 큰 직사각형 위에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2단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비).

④ 정면과 측면에서 볼 때, 복수의 원형 구멍들이 배열되어 있다(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대비).


(2) 차이점

① 정·배면과 양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프레임 테두리에는 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원형 구멍들이 아주 조밀하게 밀집되어 좌우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원형 구멍들은 와 같이 완만히 반복되는 사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주위를 보다 작은 크기의 다양한 원형 구멍들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선행디자인 1, 2에는 원형 구멍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 4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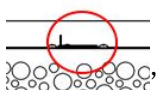
6)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2는 2단 구조의 직육면체 형상이다.

7)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4는 하부프레임이 복수개의 원형 구멍 배열이 형성되어 있다.

8) 공통점 ④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에서 어떠한 종류의 원형 구멍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복수의 원형 구멍들이 배열되어 있는 점' 자체만을 각 디자인의 공통점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해당 각 디자인에서의 복수 원형 구멍들의 구체적 배열 방식 및 태양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이점 ①로 별도 분류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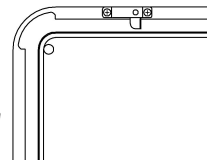
와 같이 같은 크기의 원형 구멍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위·아래의 2열로 연속하여 배열됨과 동시에 위 각 열의 사선 방향이 만나는 중간 위치에 같은 크기의 원형 구멍이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다.

②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프레임의 좌우 양쪽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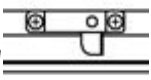
와 같이 상부프레임과 하부프레임을 결합하기 위한 걸림쇠가 회전하여 작동하도록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에는 그와 같은 노출된 형태의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③ 위에서 내려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모서리가 곡

선 처리된 각 2점의 외측 테두리(' ) 및 내측 테두리(' )가 있고, 위 내측 테두리의 형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모서리마다 내측 테두리의 안쪽으로 작은 원형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위·아래 테두리의 좌·우 방향으로 각 2개씩 총 4개의 프

레이م 결합을 위한 돌출된 걸림쇠가 ' '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

여,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2점의 얇은 외측 테두리 및

직각의 외접 내측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2는 ' '와 같이 모서리가 곡면으로 처리된 외접의 외측 테두리, 직각의 중간 테두리 및 내측 테두리가 차례로 형성

되어 있으며, 선행디자인 4는 '  '와 같이 직각의 2겹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에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내측 테두리에 접한 작은 원형 구멍과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인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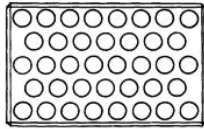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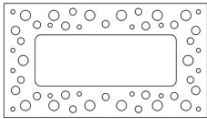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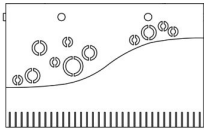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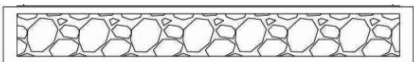
(1)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인 조명등이 천장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일정 거리를 두고 아래에서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관찰되어지는 위 각 디자인의 정·배·양 측면 및 저면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공통점 ① 내지 ④와 차이점 ①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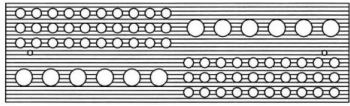


반면, 통상 천장에 가려지는 조명등의 윗부분(평면)은 일반 수요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위치하여 주의를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차이점 ③이 이에 해당하고, 정면 및 배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프레임 위쪽 라인에 접하여 살짝 드러나 있는 걸림쇠 부분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여 역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차이점 ②가 이에 해당한다.


(2)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들인 공통점 ① 내지 ④와 차이점 ①중에서 우선 공통점 ① 내지 ④를 살펴보면, (i) 정·배·양 측면 및 저면에서 관찰되어지는 공

통점 ①(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정사각형의 형상), ②(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입체 형상), ③(큰 직사각형 위에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2단 구조)은 앞서 본 선행기술들에서, (ii) 공통점 ④(복수의 원형 구멍 배열 자체)는 아래 공지디자인들(갑 제11 내지 18호증)에서 각 보는 바와 같이,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들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동시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중 공통점 ① 내지 ④가 일응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통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각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없고,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갑 제11호증 (디자인등록 제457068호, 공고 일 2007. 7. 24.)	 9)
갑 제12호증 (디자인등록 제692714호, 공고 일 2013. 5. 14.)	 10)
갑 제13호증 (디자인등록 제639074호, 공고 일 2012. 4. 5.)	 11)
갑 제14호증 (디자인등록 제700136호 유사 제1호, 공고일 2014. 1. 16.)	 12)
갑 제15호증 (디자인등록 제659173호 유사 제1호, 공고일 2012. 9. 13.)	 13)

<p>갑 제16호증 (디자인등록 제455852호, 공고 일 2007. 7. 12.)</p>	 <p>14)</p>
<p>갑 제17호증 (디자인등록 제749514호, 공고 일 2014. 7. 1.)</p>	 <p>15)</p>
<p>갑 제18호증 (디자인등록 제570755호, 공고 일 2010. 8. 24.)</p>	 <p>16)</p>

(3)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이점 ①(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정·배·양 측면에 표현되어 있는 '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모양'이 표현되어 있는 해당 디자인의 유일한 부분으로서, 전체 디자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표현된 '모양'도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 등의 면에서 원형 구멍들의 배열이 표현된 기존의 선행디자인 3 내지 6, 위 공지디자인들의 그것들과는 상이한 태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 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독특한 심미감이 나타나는 지배적인 특징,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명등의 측면에 다양한 원형 구멍을 형성하여 원 형상에

- 9)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육면 모두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0) 갑 제12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저면(갑 제12호증의 등록디자인공보에 의하면 '평면'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공보의 전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형 구멍 배열을 포함하는 면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들의 '저면'에 대응하는 구성이다)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1) 갑 제13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정·배면에만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2) 갑 제14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정·배·양 측면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3) 갑 제15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정·배·양 측면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4) 갑 제16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저면(갑 제16호증의 등록디자인공보에 의하면 '평면'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공보의 전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형 구멍 배열을 포함하는 면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들의 '저면'에 대응하는 구성이다)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5) 갑 제17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양 측면에만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 16) 갑 제18호증으로 개시된 디자인은 직육면체인 조명등의 정·배·양 측면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표현되어 있다.

빛을 투과시켜 조명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개시된 선행디자인 3 내지 6, 위 공지디자인들에서 다양하고 혼하게 사용되었던 디자인들이므로, 해당 방식이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부분이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¹⁷⁾. 살펴건대, 공통점 ④(복수의 원형 구멍 배열 자체) 부분이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으로서, 이와 관련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통점 ④가 아닌 차이점 ①, 즉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 등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 기존의 선행디자인들 및 공지디자인들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이끌어 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의 각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i) 선행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인 복수의 원형 구멍 배열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ii) 선행디자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수의 원형 구멍 배열인 '○○○○○○○○'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배열된 원형 구멍들의 생김새 및 크기가 일정하고, 배열된 방법이 매우 규칙적이며, 밀집 정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에 비해 조밀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

17) 원고의 2018. 9. 28.자 준비서면 제10쪽 아래로부터 제6쪽 내지 마지막 줄, 같은 준비서면 제21쪽 아래로부터 제5줄 내지 마지막 줄 등 참조

로 하여금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인상 내지는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화려한 인상 내지는 심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결국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선행디자인 1, 4 및 3(또는 5, 6)의 결합에 의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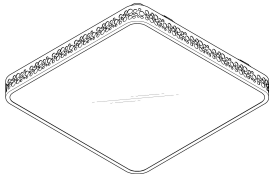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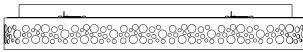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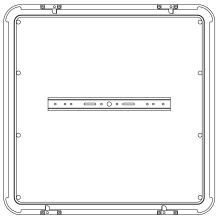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3 내지 5는 모두 천장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에 대한 디자인들로서, '천장등'(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천장매다는 등'(선행디자인 1), '천장직착등'(선행디자인 4), '천장직착등'(선행디자인 3) 등 각 해당 등록디자인공보에 기재된 물품 명칭의 일부 차이에 불구하고 각 디자인이 표현되는 대상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 선행디자인 6의 경우 그 표현된 물품이 초를 지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캔들홀더'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와 다른 면이 없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광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빛을 투과시키고, 장식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덮개라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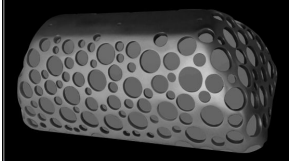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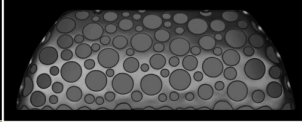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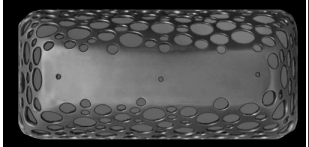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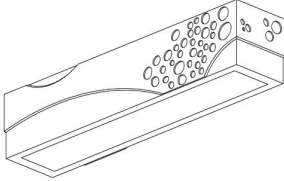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선행디자인들의 각 물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4의 대비,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앞에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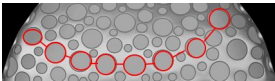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5, 6의 주요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¹⁸⁾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5, 6의 공통점은 빛이 투과되는 커버의 측면에 복수의 원형 구멍이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앞서 본 공통점 ④의 취지와 동일).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5, 6의 차이점에 관하여 보면, 우선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이점 ①()에 대응하여, 선행

디자인 3은 ''와 같이 큰 원형 구멍들이 마치 타원을 그리듯 형성

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5는 ''와 같이 우측 일부에만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선행디자인 6의 원형 구멍들은 ''와 같이 그 밀집도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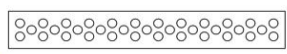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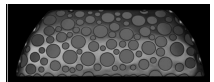
18) 선행디자인 6에 대하여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방향의 사진들(갑 제10호증, 위 대비표의 사시도 해당 부분 참조)만 제시되어 있을 뿐, 별도의 도면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이점 ②(걸림쇠 노출), ③(모서리 부분 테두리 및 걸림쇠)에 대응하는 구성은 선행디자인 3, 5, 6에 모두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4의 공통점 ①(둥근 모서리의 정사각형 형상), ②(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 형상), ③(2단 구조)은, 선행디자인 3, 5, 6에 있어서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으로 기능하는바,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③과 대비하여, 선행디자인 3은 밑변이 긴 사다리꼴 형상이고, 선행디자인 5는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을 바닥으로 하면서, 비교적 높이가 있는 직육면체 형상이며, 선행디자인 6은 원통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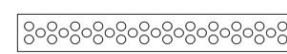

마)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4, 3의 결합, 선행디자인 1, 4, 5의 결합 또는 선행디자인 1, 4, 6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각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4, 3의 대비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3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4, 5의 대비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4, 6의 대비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6
			

(2) 위 각 대비표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각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과, 기본프레임 형상 등 형태적 요소의 차이에서 오는 전체적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2단 구조라는 공통점에 불구하고 측면에 원형 구멍의 배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체적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점, 선행디자인 4 역시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매우 상이하여 전체적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선행디자인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배열 방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밀변이 긴 사다리꼴 형상을 기본프레임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5 역시 원형 구멍 배열 및 기본프레임의 형상 및 모양에 큰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6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기본프레임이라는 점, 측면부에 배열된 각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밀집 정도, 배열 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각각 전체적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나타나게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독특한 형태적 요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는 수준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조명등의 디자인 분야에서 혼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천장에 직접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없다.

(4) 앞서 인정된 모든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천장에 직접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 분야에서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2단 구조의 직육면체 형상(위 공통점 ① 내지 ③ 등)에 독특한 원형 구멍 배열이라는 차별적 디자인(위 차이점 ①)이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위 각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고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판단에 있어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주지저명성 요건을 불필요하게 요구한 다음 주지저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홀¹⁹⁾ 배치 방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된 문구만을 들어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로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주지저명성 요건이 검토된 것이라

19) '원형 구멍'을 의미한다.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3 및 5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지 여부만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위해 판단되었을 뿐, 위 선행디자인들의 주지저명성 여부가 따져진 것이 아닌 점이 인정되는 등 원고 주장 문구의 앞뒤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무효사유로 법 제33조 제2항²⁰⁾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검토되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와 유사한 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1, 4, 3(또는 5, 6)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재판장	판사	김경란
-----	----	-----

	판사	김병국
--	----	-----

	판사	정희영
--	----	-----